

밀의 공리주의와 덕 윤리학

맹주만 · 김은미

주제분류 윤리학, 실천철학

주요어 공리주의, 덕 공리주의, 덕 윤리학, 유용성, 행복, 덕, 성품, 행위 중심, 행위자 중심

요약문

이 글은 기본적으로 덕 윤리학의 도전에 대한 공리주의적 대응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공리주의에 가해진 덕 윤리학의 비판들이 밀의 경우에는 적중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밀의 공리주의는 덕 윤리학의 비판처럼 도덕성의 기준으로서 행위자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사람의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는 이론이면서도, 또한 덕 윤리학의 비판과는 반대로 그리고 덕 윤리학의 주장에 가깝게 한 개인의 덕과 성품을 행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나아가 공리주의를 실패한 이론이라 비판하면서도 덕 윤리학 자신은 정작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도덕성의 객관적 척도를 여전히 견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밀의 공리주의는 덕 윤리학 보다 우월한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이 글은 이런 해석을 통해서 밀의 공리주의를 종래와 같은 질적 쾌락주의나 질적 공리주의 또는 규칙 공리주의로 해석하는 방식을 넘어서 덕 공리주의(virtue utilitarianism)로 규정하고 그 성격과 특징을 규명하려고 시도한다.

1. 덕 윤리학과 공리주의

한편으로는 칸트주의와 공리주의로 대표되는 근대의 주류 윤리학의 해체를 선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부활을 외치면서, 현대 윤리학의 전면에 등장한 덕 윤리학의 나이도 이제 반세기를 넘기고 있다.¹⁾ 근대 이후 서구 윤리학의 지배적인 전통이었던 칸트적 의무론과 공리주의에 대해서 휘둘렀던 칼날도 처음의 기세에 비하면 많이 무더진 듯하다.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들 수 있다. 하나는 덕 윤리학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날린 비판의 화살이 그렇게 치명적이지 못했으며, 또 하나는 덕 윤리학이 의무론 및 공리주의와 유사점들도 지니고 있으며, 심지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 그리고 밀의 윤리 이론들 모두가 덕에 관한 일정한 이론을 지니고 있다는 점들이 밝혀지면서 근대 윤리학과는 편차를 크게 벌리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덕 윤리학이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다른 윤리이론에 대해서 결정적인 비교 우위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이 세 가지 이유들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그 중심에는 덕 윤리학이 그들이 공언한 것과 달리 근대 이후의 주류 윤리학을 전면적으로 대체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대안적인 윤리 이론들 내지는 보완적 이론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불식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세부적인 차이들을 무시할 경우 의무론과 공리주의와 대별되는 덕 윤리학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꼽을 수 있다. 1) ‘행위’ 중심이라기보다는 ‘행위자’ 중심의 윤리학이다. 2) 행위(doing) 보다는 존재(being)에 관심을 둔다. 3) ‘나는 어떤 종류의 행위를 해야 하는가?’ 보다는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중

1) 주지하듯이 현대 덕 윤리학의 주창자인 앤스컴(G. E. M. Anscombe)의 최초의 논문 “근대 도덕철학”(Modern Moral Philosophy)은 1958년에 발표되었다.

시한다. 4) 의무 중심의 개념(옳음, 의무, 책임) 보다는 아레테(arete) 중심의 개념(좋은, 탁월성, 덕)을 더 기초적인 개념으로 간주한다. 5) 윤리학이 특별한 행위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규칙이나 원칙을 성문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한다.²⁾ 덕 윤리학을 특징짓는 이와 같은 신조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라 할 수 있다. 덕 윤리학에 따르면, 칸트적 의무론이든 공리주의든 이들 이론은 동기나 결과, 옳고 그름과 같은 개념에 기초해서 단순히 행위자의 개별 행위들의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확립할 수 있다는 신념을 공유하고 있는데, 덕 윤리학은 이 같은 시도는 실패했으며, 따라서 윤리적 탐구가 추구해야 할 과제인 ‘어떤 사람 되기’의 문제 역시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윤리적 문제란 결국 어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 중심으로 접근할 때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덕 윤리학은 윤리적 문제의 해결을 어떤 판단을 내리는 행위자 혹은 그/그녀의 사람됨이나 그 사람의 성품에서 발견한다. 때문에 덕 윤리학은 특정한 성품이나 유덕한 성품을 지닌 이상적인 모습의 인간에 관심을 갖는다. 덕 윤리학이 이를 위해 집중하고 있는 이론적 목표로는 대체로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첫째, 이상적 인간 모델의 제시. 둘째, 이상적 인간에게서 요구되는 덕들의 목록, 셋째, 덕의 획득 방법.³⁾ 이와 같은 목표를 옹호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위시한 고대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등 소크라테스의 계승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에피쿠로스학과 나스토아학파의 행복론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덕의 철학이 대체로 형이상학적 토대 위에서 전개되었다면, 현대의 덕 윤리학은 형이상학적 가정 없는 이론을 제시하려 한다.

2) R. Hursthouse, *On Virtue Ethics*, p. 25; 맹주만, 「칸트와 ‘행복한 자선가’」, p. 112-114.

3) W. D. Solomon, “Ethics: Normative Ethical Theories,” p. 738-739.

반면에 그동안 덕 윤리학의 비판과 도전에 대해서 칸트주의와 공리주의의 진영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이로 인해 양자 사이에 다양한 전선이 형성되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양자의 유사성이 강조되기도 하면서 윤리적 문제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 특히 의무론자들의 대부인 칸트의 윤리적 견해를 방어하려는 노력은 그에게 가해졌던 덕 윤리학자들의 비판 이상으로 격렬했지만, 반대로 그동안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칸트의 덕 이론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칸트의 윤리적 견해를 더 한층 심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공리주의 진영에서의 대응 역시 계속 되고 있다. 벤담과 함께 공리주의의 개척자라 할 수 있는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한 재해석들이 특히 그러한데, 밀의 윤리학을 아리스토텔레스적 방식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들을 포함해서 그것이 덕 윤리학을 뛰어 넘는 우월한 이론임을 보이려는 다양한 시도들도 좋은 예들이다.⁴⁾ 이 글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덕 윤리학의 도전에 대한 공리주의적 대응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밀의 공리주의를 종래와 같은 질적 쾌락주의나 질적 공리주의 또는 규칙 공리주의 보다는 덕 공리주의(virtue utilitarianism)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덕 윤리학의 비판과 평가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행위 중심과 행위자 중심

대체로 근대 시민사회의 등장과 함께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도 달리 생각하기 시작했다. 근대라는 변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생겨난 다양한 사회적 및 윤리적 갈등들을 전통적인 규범이나 권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 상황이 근대적인 규범 윤리의 등장을 재촉했다. 공리주의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구의 산물이었다. 벤담에서 시작되는 근대의 공리주의는 도덕적 행위의 목적을 쾌락의 최대화로

4) R. Hursthouse, *On Virtue Ethics*, p. 4; R. Crisp (ed.), *Mill on Utilitarianism*, 1998; 허남걸, 『밀의 공리주의 - 덕과 공리성의 만남』, 서광사, 2000.

서의 행복에다 두었으며, 개인의 덕성과 공동선을 중시하는 전통윤리를 유용성과 결과 중심의 윤리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이런 점에서 공리주의는 도덕성을 행위의 동기와 의무에서 찾으려 했던 또 하나의 근대적 전통을 형성한 칸트적 의무론과도 구별된다. 공리주의는 특히 행위의 도덕성을 철저하게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의 좋음 자체에다 둬으로써 도덕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 급진적인 철학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처음 그것이 등장한 때부터 상당히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듯이 공리주의 비판은 덕 윤리학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가령, 돼지의 철학(pig philosophy)이라는 다소 거친 비난과 함께 결과주의적 공리주의의 행위 원리는 인간의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현재에서든 미래에서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동기의 선악을 구별하기 어렵다, 동기 자체가 부차적인 것으로 고려되다 보니 그것의 중요성은 신중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도덕적인 행위를 위한 이유와 동기를 형성할 때 내면적인 감정적 측면을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최고의 좋은 결과를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거나 자신의 관심에 반하는 행위를 해야 하는 등 행위자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한다,⁵⁾ 개별 도덕적 행위자의 행복을 평가절하 하는 경향이 있다 등등.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비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 중에서 어쩌면 밀이야말로 정작 벤담식의 공리주의에 대한 가장 혹독한 비판자였다고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덕 윤리학은 공리주의에 의한 공리주의 비판처럼 내부적 거래도 아니며, 또는 지엽적이거나 우정 어린 비판이기보다는 공리주의 자체에 대한 총체적인 비판의 양상을 띠며 등장했다. 그것은 공리주의가 직면할 수 있는 내부적 문제 보다는 공리주의가 서 있는 토대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서, 만일 그것이 옳다면 공리주의로서는 치명적인 것이 될 그런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앤스컴을 비롯한 덕 윤리학자들은 근대윤리학의 약점으로 행위자의 덕과 성품, 그리고 감정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5) Michael Slote, *From Morality To Virtue*, p. 3-4.

않고 있으며, 더욱이 인간에 관한 불충분한 심리학적 이론에 기초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점들을 배제해 온 공리주의는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실패한 이론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와 같은 지적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가 실제로는 행복의 철학이 아니거나 혹은 행복 아닌 다른 가치를 더 선호하게 되는 기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리주의 진영에서도 이에 대한 반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좋은 도덕적 성품은 일반적 유용성을 최대화하기 때문에 좋은 성품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칸트적 의무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공리주의에도 덕 윤리학이 존재하며, 더 나아가 그 이상의 윤리이론임을 보여주려 했다. 그러나 덕 윤리학 역시 유용성이 어떻게 성품 형성과 관련될 수 있으며, 그것이 공리주의적 원칙으로부터 어떻게 일관성 있게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제기한다. 공리주의가 덕 윤리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의미 있으려면 행위의 도덕성에 대한 판단은 어떤 행위를 행위자 자신과 분리된 행동이 아니라 행위자의 전체 삶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공리주의에서는 원칙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기도 한다.⁶⁾ 실제로 밀 자신도 옳은 행위를 규정하는 공리주의의 기준으로서의 행복은 행위자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그 행위와 관련되는 모든 사람의 행복이라고 시종일관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공리주의에 대한 덕 윤리학의 비판은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그만큼 양자 사이에는 상호 대비되는 많은 특징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도덕적 질문에 대해서 덕 윤리학은 선, 탁월성, 덕 혹은 덕들, 성품(성격),⁷⁾ 덕 감정, 유덕한 행위자, 행위자 판단 등 평가의 대상으로서 한 개인과 결코 분리될

6) Greg Pence, “virtue theory,” p. 250; Nafsika Athanassoulis, “virtue ethics,” p. 7.

7) 이 글에서는 성품과 성격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지만 주로 ‘성품’을 주로 사용하며, 문맥상 어색할 경우에만 ‘성격’을 사용한다. 모두 영어의 character에 해당한다.

수 없는 행위들 및 전체로서의 삶 등을 중시하는 반면, 공리주의는 법칙과 원칙 중심, 행위의 결과, 유용성, 쾌락, 옳은 행위, 행위 판단 등 행위와 행위자를 분리시켜 행위 평가에 비중을 둔다. 특히 이들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은 아마도 그들 각자가 행복을 정의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실제로 덕 윤리학의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 및 그 대응과 함께 양자 간에 전개되고 있는 전선과 무대에는 행복 개념에 대한 해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대부분의 윤리적 견해들이 갈린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행복 개념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 가령, 단순화해서 말하면, 덕 윤리학은 행복을 유덕한 사람이 느끼는 것과 동일시하는 반면, 공리주의는 좋은 결과를 낳은 행위들의 총합과 동일시한다. 전자에서는 사람과 행위, 행위자와 행위가 분리될 수 없지만, 후자에서는 행복해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행복을 낳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가 우선 고려의 대상이 된다. 전자에서는 덕이 행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후자에서는 필수 조건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적용과 해석이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3. 덕 공리주의와 행복

일반적으로 행복의 철학으로서의 공리주의에서 덕은 행복을 위한 수단일 뿐 필수조건이도 목적도 아니다. 하지만 어떤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덕은 공리주의적 고려의 대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덕과 유용성(utility)의 관계가 함의하듯이 덕은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적으로 수단적인 가치로서 고려될 뿐이다. 그렇다면 밀의 경우는 어떤가? 밀의 공리주의에서 덕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분명 그 비중이 다르다. 그 이유는 일단 밀의 공리주의적 행복 개념이 상당히 독특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양적 쾌락을 옹호한 벤담의 공

리주의와 달리 밀의 공리주의가 중심에 두고 있는 행복 개념에는 덕과 성품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밀의 공리주의를 덕 공리주의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이 점에 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인 이상 덕 윤리학에서 말하는 것과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밀은 덕을 행복의 한 요소로, 그것도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행복에 본질적으로 속해 있는 근본 요소로 파악한다. 행복을 인생 혹은 행위의 목적으로 본다면 덕이나 성품을 포함한 여타의 것들은 행복을 구성하는 도구이거나 행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실천적 차원에서 그 행복이 무엇이고 어떻게 획득 가능한지를 묻는다면 덕과 성품을 단순히 유용성의 관점에서 행복 성취의 수단이나 부수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워진다. 무엇보다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답은 특히 그렇다. 무엇을 얻기 위해선 시간이나 돈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 혹은 능력도 필요한 법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 경우에 행복은 이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의 심적 상태 내지는 내적인 어떤 상태와 무관한 것일 수 없다.⁸⁾ 아마 이런 이유에서 그런 상태를 우리가 덕이나 성품 같은 것과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무척 어려울 것이다.⁹⁾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덕과 성품을 행복의 한 요소로 간주하거나 행복을 원하는 마음 상태와 더 밀접히 연관 짓는 방식으로 공리주의를 이해하면 할수록 그것은 점점 더 덕 윤리학에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밀의 공리주의 자체는 원칙적으로 덕 윤리학이 아니다. 덕 공리주의가 계속해서 공리주의로 남아 있으려면, 그것은 덕 윤리학과 구분되는 그런 것이어야 할 것이다.

벤담은 인간은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

8) Richard Kraut, "Two conception of happiness," p. 178.

9) Richard Kraut, "Two conception of happiness," p. 168.

고, 행위는 오직 쾌락에 대한 욕구에 의해서 동기화되고 쾌락만이 유일하게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전통에서는 쾌락이 곧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또한 쾌락이 그 자체로 유일한 선이기 때문에 시를 읽거나 게임을 하는 것은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하지만 주지하듯이 밀은 기본적으로 벤담의 주장에 반대해서 쾌락이 행복의 한 부분, 혹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쾌락 자체가 모든 면에서 행복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바로 질적 쾌락의 도입이 그것이다. 분명 행복을 이루는 요소들이 함께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쾌락이 행복을 낳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점들, 즉 양적 쾌락이든 질적 쾌락이든 쾌락과 쾌락 이외의 것들이 행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밀의 공리주의를 규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에 따라 밀의 덕 공리주의의 색깔도 분명해질 수 있다.

밀은 모든 행동들이 쾌락을 위한 욕구에 의해서 동기화된다는 견해를 거부하면서도 모든 행위가 쾌락을 목적으로 한다는 생각과 절교하지 않는다.¹⁰⁾ 밀은 여전히 쾌락과 같은 일시적인 것들과 관련하여 행복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의 중요성도 인정한다. 하지만 밀의 최우선 관심은 전체의 삶 혹은 꽤 상당히 긴 삶과 관련한 행복이다. 이에 비해서 단지 잠깐의 감정, 경향, 태도 혹은 만족을 가리키는 행복은 파생적이고 이차적이다. 밀은 행복을 단순한 쾌락의 총량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적절한 계획과 장기간에 걸친 합리적이면서도 성공적인 실천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¹¹⁾ 이러한 점들은 밀이 행복을 단순한 쾌락과의 관계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쾌락 이외의 다른 요소들도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밀은 벤담을 좇아 공리주의가 표방하는 행복과 공리주의의 근본정신을 옹호하면서도 벤담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행복 개념을 제시한다. 이 때문에 밀의 행복 개념을 놓고 벌어지는 해석 상의 대립이 있어 왔다. 행복

10) Fred R. Berger, *Happiness, Justice, and Freedom*, p. 13.

11) Robert W. Hoag, "Mill's conception of happiness as an inclusive end," p. 4-5.

개념에 대한 포괄적 해석과 지배적 해석의 대립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 두 해석은 근본적으로 행복을 포괄적 목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배적 목적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두고 대립한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것은 대부분 행복과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들, 즉 음악, 건강 및 덕 등과 같은 요소들의 관계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쟁이다. ‘포괄적인 목적’은 목적 자체를 위해서 추구되는 일련의 개별적인 목표를 포함한다. 반면에 ‘지배적인 목적’은 일련의 개별적인 목표들이 오로지 행복에 수단적인 요소로서만 평가된다.¹²⁾ 밀은 그의 주저 『논리학 체계』에서 행복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주장을 내놓는다. 밀은 이 저서의 마지막 장에서 기술(Art)과 과학(Science)을 구별하면서 과학의 명제는 지시적 형태로 표현되고, 그리고 사실의 문제를 다루며, 반면에 기술의 명제는 규칙 혹은 교훈으로서 명령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모든 유형의 규범적인 혹은 평가적인 명제들은 과학과는 대조적으로 기술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면서 아주 분명하게 다수의 특별한 기술들, 바랄만한 목적으로서 상상된 다수의 별개의 대상들 혹은 사태가 있다고 주장한다.¹³⁾ 이런 다수의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행복 개념은 그와 관련된 여타의 것들에 대해서 상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¹⁴⁾ 기술의 명제와 관계있는 행복 개념은 삶의 다양한 목적들 중에 가치 있음과 우선성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며, 이 같은 포괄적인 관계 아래서 행복이 삶의 궁극적 목적이자 도덕성의 기초라는 것을 드러낸다.¹⁵⁾ 밀은 행복을 자신의 삶의 장기간의 계획에 대한 실천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장기간의 계획 속에 포함된 요소들이 궁극적으로 행복을 구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쾌락, 음악, 건강, 덕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자기 삶의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지배적인지 혹은 포괄적인지 구별할 수 있다. 대부분의

12) Geoffrey Scarre, *Utilitarianism*, p. 139.

13) J. S. Mill, *A System of Logic*, VI, xii, §6, §7.

14) Robert W. Hoag, “Mill's conception of happiness as an inclusive end,” p. 421. 각주.

15) Robert W. Hoag, “Mill's conception of happiness as an inclusive end,” p. 419.

사람들은 단일한 하나의 요소와 관련해서 궁극적 목적을 인식한다. 마치 벤담이 쾌락만이 행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쾌락을 단일한 하나의 궁극목적으로 여긴다면 사람들은 그 쾌락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삶의 계획으로 간주한다. 이는 지배적 목적으로서의 행복 개념이 될 것이다. 혹은 하나가 아닌 다수의 활동 또는 사태들의 조화로운 통합과 관련해서 삶의 계획을 추구하기도 한다. 이는 포괄적 목적으로서의 행복 개념이 될 것이다. 밀은 분명 후자의 포괄적인 의미로 행복을 정의하고 있다. 더욱이 밀은 행복이 여러 개의 개별적인 기술들 그리고 그것들의 바랄만한 목적을 가진 삶의 궁극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궁극목적으로서의 행복을 위한 목적적 수단으로서 바랄만한 다수의 것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행복 개념의 포괄적 사용에 대한 밀의 주장들은 『공리주의』 전반에 걸쳐서, 특히 4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행복의 요소들은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그들 각각은 그 자체로 바랄만하다. 그저 총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간주될 때가 아니라, 그것들 자체로 그리고 그것들 자체를 위해서 욕구되고 그리고 바랄만한 것이다. 수단적인 것 외에도, 그것들은 목적의 부분이다.” 밀은 행복의 요소들을 단순히 수단으로서만이 아닌 목적, 그리고 그 자체로 바랄만한 것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밀의 견해에 따르면, X가 행복의 한 요소라면, X가 수단으로서 그리고 목적으로서 바랄만하다면, X가 그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외의 어떤 것을 위해서 바랄만하다면, X는 행복의 한 부분이다.¹⁶⁾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우리는 밀이 행복 개념을 포괄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리주의』 뿐만 아니라 『논리학 체계』에서도 공히 수단과 목적으로서 바랄만한 것들, 그리고 “의지가 동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할 때, 동기는 항상 혹은 오로지 쾌락 혹은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듯이,¹⁷⁾ 쾌락의 추구나 고통의 회피 외에도 덕, 음악, 건

16) Robert W. Hoag, “Mill's conception of happiness as an inclusive end,” p. 423.

17) J. S. Mill, *A System of Logic*, p. 1024-1025.

강, 지성, 감정과 상상력, 도덕적 정서 등을 행복의 부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텍스트의 증거들을 통해 드러난 포괄적 의미의 행복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밀이 행복의 부분이나 요소로서 덕을 인정한다는 것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밀은 단순히 쾌락과 행복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벤담식의 공리주의를 분명히 포기하고 있다. 밀의 공리주의는 쾌락들, 고통들, 활동들, 그리고 덕들을 행복의 부분으로서 포함하고 있다.¹⁸⁾ 덕은 행복의 수단이면서 또한 부분적으로 행복을 구성한다. 밀에 의하면, 처음에 덕은 행복에 필요한 훌륭한 수단으로 선택되며, 점차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 특히 덕 윤리학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유용성의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어 습관이나 교육을 통해 덕스럽게 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일단 누구나 덕스럽게 되면, 덕 그 자체로부터 얻게 되는 쾌락을 발견하게 되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를 통해 덕의 내재적 가치를 이해하고 덕 그 자체를 위해 행동하게 된다.¹⁹⁾ 심지어 이런 단계에서는 비록 덕이 쾌락을 산출하지 못한다 해도 덕은 그 자체로 행복의 한 요소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유용성의 관점과 결합된 덕에 대한 밀의 이해는 분명 덕 윤리학의 그것과 확연히 구분된다.

이렇듯 밀에게 덕은 더 이상 수단이기를 그치고 그 자체로도 행복의 한 요소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리주의의 근본 원리인 유용성의 관점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밀이 비록 그것이 고급의 질적 가치라 해도 오직 쾌락만이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했다고 말하는 것은 밀을 상당히 오해한 경우라 할 수 있다.²⁰⁾ 따라서 우리가 좀 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공리주의와 덕 윤리학을 확실히 구분하면서도 밀을 덕 공리주의자로 규명하는 것이다. 단순히 덕이 행복의 한 요소라

18) Martha C. Nussbaum, "Mill between Aristotle & Bentham," p. 66.

19) S. Evan Kreider, "Mill on happiness," p. 58.

20) Fred R. Berger, *Happiness, Justice, and Freedom*, p. 38.

는 말은 밀의 공리주의를 덕 윤리학의 일부로 간주해도 무방한 것으로 만들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밀의 공리주의에서 원칙적으로 덕 자체는 언제나 행복 또는 궁극목적 내지는 목적의 일부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덕 윤리학에 너무 가까워진다. 공리주의 계산법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덕을 포함한 여타의 것들은 행복을 산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럼에도 덕이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공리주의 자체의 원리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것이지 그 역은 아니다. 또한 사회적 유용성의 차원에서 전체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것을 단순히 일시적인 유용성에서만 바라보지 않도록 만든다. 덕이 정말로 유용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삶 전체를 통해서 추구되는 행복에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서의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유용성이 거부될 수 있듯이 장기적인 유용성을 위한 단기적인 고통은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덕이 언제나 고통만을 낳거나 또 덕이 쾌락을 낳지 못한다면 “덕을 사랑하지도 욕구하지도 않을 것이며,”²¹⁾ 따라서 그것은 결코 행복의 일부분이 될 수 없다. 밀이 강조하는 음악, 건강, 덕 등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과 결합해 있는 덕이 행복에 대한 단순한 수단이기를 그치고 행복의 한 부분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인 것도 그것이 정신적으로 상위 능력의 발휘를 통해 진정으로 행복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성향이기 때문이다.

4. 덕과 성품

지금까지 행복에 대한 포괄적 해석에 기초해서 덕과 행복의 불가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공리주의 원칙에 충실할 경우, 오직 쾌락만이 행복은 아니라는 것, 또 만일 결과로서의 쾌락을 낳지 못하는 덕이라면, 그 역시 행복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밀의 주장은 그의 덕 공리주의가 덕 윤리학

21) J. S. Mill, *Utilitarianism*, p.48.

과 구별되면서도 그 이상의 함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행복에는 결과 이외에도 수단이나 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된다. 밀은 그 중에서도 덕과 함께 성품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이를 통해 밀의 그것을 덕 공리주의라 부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저급한 쾌락과 고급한 쾌락, 양적 쾌락과 질적 쾌락의 구분에서 어떤 쾌락을 고급한 쾌락으로, 즉 고상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어떤 것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 특히 그 대상이 쾌락이라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쾌락 자체일 수는 없다. 바로 이에 대한 밀의 사유가 그를 쾌락이 갖는 질적인 성격에 주목하는 덕 공리주의자로 만들어 준다.

밀은 고급한 질적 쾌락과 저급한 양적 쾌락을 모두 경험해본 사람만이 고급한 쾌락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자격 있는 판단자”라 부른다.²²⁾ 쾌락의 차이를 느끼는 것은 당연히 쾌락 자체가 아니라 쾌락을 느끼는 자의 판단일 수밖에 없다. 또한 그 판단자가 어떤 자격을 갖춘 판단자인지는 더욱 중요하다. 밀이 성품의 덕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밀에 의하면, 덕이란 사회적 유용성을 지닌 행위들에 부여하는 하나의 도덕적 평가인데, 성품은 이런 덕 있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이끄는 마음의 상태 또는 개인의 특징적인 성향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그 자체는 쾌락이 아니면서도 고급 쾌락을 경험할 수 있는 성향이 곧 성품인데, 이런 성품이 사회적 이익에 기여하는 행위들이 바로 공리주의적 덕이다. 이런 의미의 덕은 이미 그 자체가 행복에 대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의 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이해될 경우, 밀에게서는 쾌락(행복)을 낳는 행위, 덕과 성품, 그리고 행위 주체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의 밀의 공리주의는 더 이상 단순히 행위 중심의 윤리학도 아니다. 이 같은 특징은 주지하듯이 그의 쾌락 개념에 대한 이해에서 더욱 확실히 엿볼 수 있다.

22) J. S. Mill, *Utilitarianism*, p. 9.

밀은 쾌락에 대해서 주관적 개념과 객관적 개념을 구분하는데, 밀이 강조하는 덕은 쾌락에 대한 객관적 개념과 관계한다. 반면 주관적 개념은 보통 쾌락주의자들이 유일한 선으로 쾌락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주관적 만족으로서의 쾌락’에 주목하는 해석이다. 이 경우에 쾌락은 어떤 종류의 정신상태 혹은 감각상태에서 얻어지는 것으로서 우연적인 심리적 상태와 관계한다. 반면에 객관적 개념은 어떤 성품, 어떤 능력의 발휘와 관련된다. 이런 능력 혹은 그것의 발휘는 그것들이 생산하는 쾌락과는 다른 것으로서 양자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²³⁾ 밀이 질적 쾌락을 언급할 때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런 쾌락이다. 이런 객관적 쾌락의 예로서 밀은 음악, 건강, 그리고 덕 등을 제시한다. 밀은 이런 능력의 사용을 통해서 두 쾌락을 모두 경험해본 사람, 이른바 ‘자격 있는 판단자’들이 인간의 고급 능력을 잘 계발시킨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더욱 더 합리적 능력을 연마하는 활동을 선호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런 능력을 갖는 것이 자신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게 된다.

밀은 이처럼 고급쾌락을 낳는 다양한 행복 요소들 중에서 덕을 특히 가장 높이 평가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밀은 이러한 덕이 그 자체를 위해서 욕구되고 바람직한 것들 중의 하나라 하여 덕이 궁극목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인정한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금전욕과 결부시켜 설명한다.²⁴⁾ 금전욕의 경우 돈은 반짝이는 돌무더기 이상의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가치를 갖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갖고 있는 가치 때문이다. 즉, 돈의 가치는 돈 이외의 것에 대한 욕구이고, 돈은 이 욕구를 만족시키는 수단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돈을 소비하려는 욕망보다 돈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은 단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소망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 일부로서 소망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덕과 돈을 동일시 할 수는 없지만, 비유적 의미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덕이 궁극적으로 그 자체 목적

23) David O. Brink, “Mill's Deliberative Utilitarianism,” p. 69.

24) J. S. Mill, *Utilitarianism*, p. 46.

까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심지어 밀은 행복의 구성물로서의 덕이 습관과 교육을 통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으며, 특히 도덕적 행위자를 계발시켜주며, 이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보고 있다. 또 이런 덕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하고 덕 그 자체를 위해 덕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밀이 강조하는 인간이 가진 고귀한 품성이다. 이러한 품성의 소유자는 덕 그 자체 속에서 쾌락을 발견하며, 그 스스로가 덕을 욕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²⁵⁾ 밀의 이런 설명에 따르면 처음에는 덕을 갖고자 하는 욕구나 동기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지만,²⁶⁾ 결국에는 덕을 욕구하는 것 자체가 동기가 된다.

이와 같이 성품의 덕이 행복과 동일한 것이 된다면, 이 양자는 구별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게 되며, 그럴 경우 덕이 곧 행복을 낳는다고 생각하는 덕 윤리학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행복 개념에 대한 해명에서도 지적했듯이 덕 윤리학과 구분되면서도 밀을 여전히 공리주의자로 남게 할 수 있는 성품의 덕은 과연 무엇인가? 밀은 분명 덕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 소망되는 것은 행복 이외에 아무 것도 없다.”²⁷⁾는 공리주의자의 태도를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밀이 말하는 덕은 언제나 결과로서의 쾌락 혹은 고통과 관련해서만 의미를 갖는다. 만일 어떤 덕을 갖고 있으면서도 만일 그것이 쾌락을 가져다주지 못하거나, 혹은 덕을 잃어버려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리주의가 말하는 행복이 아니다.²⁸⁾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누군가가 행복을 위해서 덕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결코 도덕적 의무감에서 하는 행위도 아니다. 밀에 따르면 결코 강제로 하는 행위여서 행복을 낳지 못하는 덕은 공리주의적 덕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성품 혹은 성격은 실천적 선택과 행위와 관계된 특

25) S. Evan Kreider, “Mill on Happiness,” p. 58.

26) J. S. Mill, *Utilitarianism*, p. 47-48.

27) J. S. Mill, *Utilitarianism*, p. 48.

28) J. S. Mill, *Utilitarianism*, p. 48.

성을 갖는데, 예를 들어 용기, 중용, 그리고 정의와 같은 특성들은 보통 신념, 자극적인 욕망들,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들이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적당한 도덕 교육과 노력을 통해 개인이 계발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특성들이다.²⁹⁾ 우리는 대체로 성품 내지는 성격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밀은 성품을 특히 본성과 관련하여 묘사한다. 실제로 ‘본성’이라는 단어는 그릇된 취향과 그릇된 철학, 그릇된 도덕, 그리고 심지어 악법을 낳게 한 가장 풍부한 원천들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밀은 ‘본성’이라는 단어를 신비한 어떤 것이 아니라 “현상을 드러나게 하는 그것의 전체 능력”³⁰⁾이라는 의미로 이해한다. 그리고 성품은 하나의 본성을 소유한 인간 존재가 행위 하는 방법 혹은 다른 인간 존재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의 공유된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방식을 포함한다. 그것은 어느 특정한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어떻게 행위 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들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와 같이 개인을 둘러싼 모든 것을 포함한다.³¹⁾ 밀은 말하기를 “욕구와 충동이 그 자신의 것인 사람, 즉 그것들이 그 자신의 수양에 의해 계발되고 수정되어 온 것으로 자신의 본성을 표현하는 사람은 성품을 가졌다고 한다. 욕구와 충동이 자신의 것이 아닌 사람은 증기 기관차가 성품을 갖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성품을 갖지 않는다.”³²⁾ 이러한 밀의 주장은 욕구와 충동이 말 그대로 통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 동물적 인간에 지나지 않는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품을 가졌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밀은 우리의 본성도 마찬가지로여서 욕구와 충동처럼 있는 그대로 자신의 본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지니고 있는 또 다

29) Lawrence C. Becker and Charlotte B. Becker, *Encyclopedia of Ethics*, p. 200.

30) Janice Carlisle, *John Stuart Mill and the writing of Character*, p. 1 재인용.

31) 밀의 ‘성품(character)’은 우리가 ‘개성’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성품이나 개성이 자신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하지만 성품이 자신 이외의 타인과의 관계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도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개성은 그렇지 않다.

32) J. S. Mill, *On Liberty*, p. 86.

른 능력의 형성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보다 차원 높은 쾌락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수양(self-culture)을 거쳐서 형성되는 성품이라는 것이다.

밀에게 있어서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 예를 들어 유덕한 사람이 되는 것과 관계된 감정 그리고 행위에 대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³³⁾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성품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밀은 말하기를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자유롭다고 느끼는 사람은 동시에 확고한 덕(confirmed virtue)을 소유한 사람이며,³⁴⁾ 이런 사람은 “자신의 습관이나 유혹이 그의 주인이 아니라 그 자신이 습관이나 유혹의 주인인 사람으로서 도덕적으로 자유롭게 느끼는 사람이다. 그는 설사 습관이나 유혹에 굴복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그것들에 저항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³⁵⁾ 이러한 사람을 밀은 또한 “확고한 성품(confirmed character)”³⁶⁾을 지녔다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덕과 성품은 분리해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밀이 말하는 “성품과 덕은 동일한 개념”³⁷⁾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덕이 행위의 객관적-사회적 측면을 표현한다면, 성품은 행위의 주관적-개인적 측면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덕과 성품의 이런 관계에서 보면, 행위의 동기는 단순히 쾌락과 고통이 아니라 행위자의 성품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확고한 덕을 가진 올바른 사람은 어려운 도덕적 상황에서 옳은 일을 하려고 욕구한다. 그리고 획득할 수 있는 쾌락에 대한 생각 없이 도덕적으로 요구된 행위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³⁸⁾ 나아가 밀은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탁월한 성품은 그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33) Fred R. Berger, *Happiness, Justice, and Freedom*, p. 18.

34) J. S. Mill, *A System of Logic*, p. 1024.

35) J. S. Mill, *A System of Logic*, p. 1023-1024.

36) J. S. Mill, *A System of Logic*, p. 1025.

37) 허남걸, 『밀의 공리주의 - 덕과 공리성의 만남』, p. 61.

38) Fred R. Berger, *Happiness, Justice, and Freedom*, p. 18.

마찬가지로 선한 성품을 획득하는 것 역시 행복에 공헌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된다.³⁹⁾ 심지어 밀은 “공리주의의 목적 달성은 고귀한 성품의 일반적 계발에 의해서만 이룰 수 있다.”⁴⁰⁾고까지 말한다. 이처럼 행위의 원천을 행위자의 성품에서 찾으려고 하며, 성품에서 우리나라는 행위들은 공리주의적 계산법에서 높은 가치를 갖게 된다. 이러한 수준에서는 덕과 유용성 내지는 행복한 삶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덕 윤리학에서의 덕은 결과로서의 행복을 우선적인 고려사항으로 간주하지 않는 반면에, 밀의 공리주의적 덕은 그 자체가 이미 최대의 공리를 낳는 행복의 일부분으로서 평가된다. 때문에 최대의 행복과 상관없거나 일종의 칸트식의 도덕적 의무감에서만 발휘되는 덕은 진정한 덕이 아니다. 밀의 공리주의를 질적 공리주의나 규칙 공리주의와 같은 종래의 평가를 넘어서 덕 공리주의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 나오며

덕 윤리학은 공리주의가 결과만을 중시하는 행위중심의 윤리를 확립했지만, 그것이 목표로 했던 옳고 그름의 객관적 기준을 입증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으며, 결국 어떤 유의미한 행위지침도 제공하지 못하고 말았다고 비판해왔다. 이와 같은 비판에 힘을 실어주었던 것이 바로 그들이 강조하는 덕 중심, 행위자 중심, 전체로서의 개인의 삶 중심의 윤리적 지침들이었다. 그들은 이런 기준과 원칙을 갖고서 공리주의가 했던 것 이상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시도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밀의 공리주의는 덕 윤리학의 비판과 달리 행위자 및 그/그녀의 덕을, 그리고 한 개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추구되는 행복을 강조하며, 그 중심에 고급 쾌락의 원천이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활동으로서의 덕과 성품을 중시하는 윤리학이다.

39) Geoffrey Scarre, *Utilitarianism*, p. 90.

40) J. S. Mill, *Utilitarianism*, p. 16.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과 달리 밀의 덕 공리주의에서는 덕 윤리학에서처럼 덕도 행복을 낳으며, 행복의 필수조건으로서 그 자체가 목적으로까지 승인된다. 그러나 덕 윤리학과 달리 그 덕은 언제나 쾌락을 낳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만일 덕을 얻어도 쾌락을 느끼지 못하거나 덕을 잃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행복은 공리주의적 의미에서의 덕이 아니다. 행복은 언제나 덕과 비례하는 것으로서 추구되거나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표면상 그리고 밀 역시 강조하듯이 행위 중심의 결과주의라는 대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그의 덕 공리주의에서는 덕과 성품, 행위와 행위자, 그리고 행복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결과라는 하나의 단일한 척도 아래서 고려되고 있다.

또한 밀의 덕 공리주의는 개인의 성품과 도덕적 덕을 결과로서의 행복과 동일시하면서도 결코 행복의 요소들을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한 개인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성품의 덕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성품적 탁월성은 물론이고 음악, 건강, 지적 및 정신적 쾌락을 포함해서 정신적 완성에 이르기까지 행복을 구성하는 스펙트럼은 다양할 수 있다. 이 같은 밀의 사고는 인간은 사회적 및 역사적 진보를 통해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고귀한 인간적 자질을 계발할 수 있으며, 또 이에 따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존재라는 확고한 믿음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밀의 공리주의는 단순히 공리주의나 아리스토텔레스적 윤리학이나 혹은 현대적 의미의 덕 윤리학 등 어느 하나에 한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과 행복의 관계에 입각해서 보여주고 있는 밀의 윤리적 견해를 덕 공리주의라 불러도 무방한 이유는 분명하다.

(중앙대학교)

참고문헌

- 맹주만, 「칸트와 ‘행복한 자선가’」, 『범한철학』 제56집, 범한철학회 2010.
- 허남결, 『밀의 공리주의 - 덕과 공리성의 만남』, 서광사, 2000.
- Anscombe, G. E. M., “Modern Moral Philosophy,”(Philosophy 33(1958)), in Crisp, R. and Slote, M. (ed.), *Virtue Eth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Athanassoulis, Nafsika, “virtue ethics,”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04.
- Berger, Fred R, *Happiness, Justice, and Freedom: The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of John Stuart Mill*,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 Brink, David O., “Mill’s Deliberative Utilitarianism,”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Vol. 21, No. 1(1992).
- Carlisle, Janice, *John Stuart Mill and the writing of Character*, The university of Georgia, 1991
- Crisp, R. (ed.), *Mill on Utilitarianism*, Rotledge, 1997.
- Crisp, R. and Slote, M. (ed.), *Virtue Eth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Engstrom, S. and Whiting, J. (ed.), *Aristotle, Kant and the Sto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Hoag, Robert W., “Mill’s conception of Happiness as an Inclusive End,”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1987.
- Hursthouse, R., *On Virtue Eth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Mill, J. S., *On Liberty*, A Forum Book, New York: Pyramid, 1966.
- _____, *Utilitarianism*, Oskar Piest (ed.), The Liberal Arts Press, 1957.
- _____, *A System of Logic: Ratiocinative and Inductive, Being a Connected view of the principles of evidence, and the methods of scientific investigation.*, Project Gutenberg, [Ebook 27942], 2009.

<http://www.gutenberg.org>

Kraut, Richard, "Two conception of happiness," *Philosophical Review*, Vol. 88, No. 2(1979).

Kreider, S. Evan, "Mill on Happiness," *Philosophical Papers*, Vol. 39, No. 1(2010).

Nussbaum, Martha C., "Mill between Aristotle & Bentham," *Daedalus*, vol 133. 2004.

Pence, G., "virtue theory," *A Companion to Ethics*, Peter Singer (ed.), Blackwell, 1993.

Scarre, Geoffrey, *Utilitarianism*, Routledge, 1996.

Slote, M., *From Morality to Virtue*,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Solomon, W. D., "Ethics: Normative Ethical Theories," *Encyclopedia of Bioethics*, Vol. 2(1995).

Mill's Utilitarianism and Virtue Ethics

Jooman Maeng & Eunmi Kim

This paper basically takes aim at interpreting Mill's utilitarianism as a virtue-utilitarianism, including utilitarian response to contemporary virtue ethics. Critics who consider virtue ethics as agent-centered ethics criticize utilitarianism based on the belief that an action is morally right if it benefits the majority of people cannot be agent-centered ethics. According to virtue ethics, the basic principles of utilitarianism are agency-centered ethics. But I think that Mill's utilitarianism is not so.

Mill adheres strictly to the principles of utilitarianism: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consequentialism, teleological theory of ethics, principle of utility. But most of all, it is significant to note that virtue is very highly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part of happiness. Furthermore, he identifies virtue with happiness,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gent's character. Therefore through these interpretations it is justified that Mill's utilitarianism is named virtue utilitarianism, including way understood under the style of qualitative hedonism and qualitative or rule utilitarianism.

Key words: virtue ethics, virtue utilitarianism, utility, virtue, character, happiness, agent-centered, agency-centered

맹주만 e-mail: maengjm@cau.ac.kr

투 고 일	2011년 10월 24일
심 사 일	2011년 11월 09일
게재확정	2011년 11월 21일